

십리 벚꽃길

■ 코스 지도

장터과 꽃길, 차향을 만나는 코스



■ 오디오 가이드 리스트

| 구분 | 지명 | 주요내용 | 비고 |
|----|-------------|-------------|------|
| 1 | 화개장터 | 화개장터 노래 | 민속자료 |
| 2 | 십리벚꽃길 | 조선 선비들의 유람로 | 생태 |
| 3 | 차문화센터 | 차문화센터의 역할 | 민속자료 |
| 4 | 차시배지 | 우리나라 차의 시발점 | 역사 |
| 5 | 천년 차나무와 야생차 | 천년 차나무와 야생차 | 역사 |
| 6 | 다원과 차체험 | 하동차의 우수성 | 민속자료 |

1. 화개장터

‘하동’을 생각하면 이 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화개장터에서 쌍계사로 이어지는 바로 십리벚꽃길입니다.

꽃잎과 차향, 그리고 사람냄새가 봄바람에 흩날려 나그네의 마음을 간질이는 곳.

설레는 마음으로 내딛었다가 주변 풍광에 취해 마냥 걷고 싶어지는 길.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꼽혀 누구나 한번쯤은 와보고 싶어 하는 길인 십리벚꽃길의 출발점, 화개장터부터 돌아볼까요?

화개장터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부터 속으로 이 노래 생각하신 분들 많으시죠?

소설가 김한길씨가 가사를 썼다는 조영남의 <화개장터>

이 노래 덕분에 화개장터는 타지 사람들에게도 아주 유명한 장터가 됐습니다.

소설가 김동리 선생의 <역마>에 무대라도 많이 알려졌죠.

전라도에서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화개면 탑리에 있는 화개장터는 해방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7대 시장 중에 하나로 5일장의 형식으로 열렸습니다.

당시엔 지리산 화전민들이 고사리와 더덕, 감자 등을 팔았고 전라도 남원, 구례, 경남 함양에서 온 내륙사람들은 쌀보리를 팔았죠. 또 광양, 여수, 남해, 삼천포 등에서 뱃길을 이용해 온 상인들이 미역과 고등어 같은 수산물을 팔기도 했습니다.

전국을 떠돌던 보부상들도 참 많았던 이 곳 화개장터.

노랫말처럼 있을 건 다 있는 구경하기도 참 좋은 시골장터였죠.

하지만 지금은 복원사업을 거치며 그 모습이 좀 달라졌어요.

5일장이던 것이 상설시장으로 바뀌었고 시장터도 지금 버스터미널이 들어선 위치였는데 화개천 건너로 옮겨졌죠.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사람냄새 물씬 풍기는 시골 정취죠.

이곳에선 여전히 시골장터의 대명사인 국밥집과 막걸리 한 사발이 생각나는 도토리묵집, 섬진강에서 직접 캔 재첩국집등이 웃음과 정을 담아 나그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또 이곳엔 전통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대장간도 남아 있어 호미와 낫 같은 전통 농기구와 주방용 칼등을 즉석에서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시간은 멈추고 정은 흐르는 곳, 이곳은 화개장터입니다.

2. 십리벚꽃길

<화개장터>에서 ‘화개’는 이 지역의 이름으로 꽃 ‘화’에, 열린 ‘개’자를 써서 말 그대로 ‘꽃이 열린다’, ‘꽃이 핀다’는 뜻인데요, 그런 이름값을 톡톡히 하려는 듯 화개장터에서 쌍계사로 향하는 십리길은 봄이 되면 꽃의 대향연이 펼쳐집니다. 온통 벚꽃세상이 되기 때문이죠.

벚꽃이 한창 흐드러지게 필 때면 섬진강변은 꽃이 강을 이뤄 흐릅니다. 특히 화개천을 따라 벚꽃터널이 펼쳐질 때면 화개천 인근은 벚꽃잎이 눈처럼 흩뿌려져 때 아닌 환상적인 풍광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길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구례 산수유와 함께 지리산의 봄을 여는 이곳의 벚꽃은 왕벚꽃으로 필 때는 더없이 화려하고 꽃잎이 떨어질때는 처연한 아름다움까지 머금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의 황홀경에 빠져 걷다보면 금세 쌍계사 초입마을에 닿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하지만 1시간이 지났다는 걸 전혀 눈치 채지 못하실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벚꽃길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 시간을 잊어버렸을 테니까요.

김동리 선생이 소설 ‘역마’에서 하셨던 말처럼 말이죠.

ins. "화개 장터에서 쌍계사까지의 시오리길은 언제 걸어도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 길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손을 잡고 걸으면 백년해로 한다고 해서 ‘혼례길’로도 불리는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방문객들 중 유독 젊은 연인들이 많다고 하네요.

사실 이 길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청학동 유람길’이라는 역사적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옛부터 이상향으로 불리웠던 “청학동”은 지금의 불일폭포와 불일암 부근으로 신라 말 고운 최치원 선생이 은거했던 장소로 알려져 있으며, 푸른 학이 노닐던 곳이라고 하여 불인 이름입니다.

시화집의 효시라 불리는 쌍명재 이인로 선생의 ‘파한집(破閑集)’에 이런 이야기가 전하고 있죠.

“지리산은 두류산이라고 하는데, 이 산을 둘러싼 고을이 10여 주에 이르고, 이 산의 신비를 다 살필 양이면 얼마만큼의 세월이 걸릴지 모른다. 옛 노인들이 서로 전하기를 이 산속에 청학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길이 매우 좁아 겨우 사람이 지나칠 만하며, 어떤 곳에서는 아주 길이 막혀 기고 엎드리고 하여 가까스로 수 리를 들어가면, 비로소 광활한 별천지가 펼쳐진다. 거기는 양전 옥토(良田沃土)로 곡식을 심기에 적당하며 오직 청학이 서식함으로 그런 이름이 전한다.”

조선시대까지도 ‘청학동’을 찾는 노력이 계속되어 이 곳 십리벚꽃길부터 불일암 일대까지의 청학동 유람을 하는 선비들의 발길이 이어지게 되죠

그 중 남명 조식 선생은 진주목사 김홍, 자신의 벗인 황강 이희안 선생, 구암 이정선생 등과 이 일대를 유람 한 후 “청학동”이라는 한시를 지어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천년고찰 쌍계사와 부속 암자인 불일암 등지에서 정진하기 위해 신라시대의 원효대사에서부터 근대의 법정스님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승들이 지나던 길이였습니다.

벚꽃 말고도 이 길을 걷다보면 또 다른 반가운 손님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봄만 되면 화개천을 찾아오는 ‘황어’입니다.

황어는 약 45센티미터 크기의 물고기로 등쪽은 노란갈색이구요, 옆구리와 배쪽은 은백색을 띤 잉어과입니다.

대부분의 일생을 바다에서 보내지만 알을 낳기 위해서 강으로 올라오는데요.

이때가 3월 정도랍니다.

주로 회나 매운탕을 해서 먹는다고 하니,

따뜻한 봄날 아름다운 꽃길을 걸은 후에 먹는 황어매운탕도 십리벚꽃길 여행의 또 다른 별미가 아닐까 싶네요

3. 차문화센터

흠날리는 벚꽃 앞에 취하다 깨어날 즈음, 우리는 이 길 위에서 또 다시 아득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탁 트인 야생차밭 때문이죠. 십리벚꽃길이 마무리 되는 쌍계사 초입 지리산 일대에는 야생차밭이 있는데요, 연한 초록빛의 차밭은 꽃나무와는 또 다른 생기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벚꽃이 질 즈음 차잎새순이 돋아나는데, 그 때 차밭은 강한 생명력이 느껴지죠. 특히 이곳의 차가 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지역 야생차밭이 그저 평범한 차밭이 아닌 대한민국 차 시배지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차를 심어 가꾼 곳이라는 애긴데요, 이처럼 의미 깊은 곳이기 때문에 2008년 하동군에서는 하동차에 대한 자부심으로 차문화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차가 새순에서 차잎으로 자라난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찻잔에 담기기까지를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거죠. 하동 차문화센터 관계자의 소개말 들어볼까요?

하동의 차문화센터는 하동 차의 우수성을 널리알리기위해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하동차의 역사는 1,30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문화센터에는 차의 역사와 문헌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전시관이면서 진감선사, 초의선사 등 하동 차를 가꿔온 차인들을 소개하고 차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공헌한 박종한 선생의 소장품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차를 직접 뒤어보고 제조하는 방법등을 체험 할 수 있습니다. 차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경험해보고 마셔봄으로서 즐거움이 배가되는 곳이 이곳 차 문화 센터입니다.

4. 차 시배지

차문화센터에서 차와 친숙해지셨다면, 이제는 차밭에서 차의 뿌리를 만나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 곳! 하동의 화개면 운수리가 우리나라 최초의 차 시배지인데요, 이곳은 1983년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이 됐고, 2008년 한국기록원이 삼국유사와 신라본기를 근거로 해서 공식적으로 인증한 곳입니다.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요, 신라 흥덕왕 3년인 828년에 대렴공이라는 사람이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차나무 종자를 가지고 왔다고 해요, 그 후 왕의 명령으로 이곳 화개동천에 종자를 심었는데요, 이곳에서 난 차를 통일신라의 유명한 승려 진감선사와 같은 선종승려들이 자주 마시게 되면서 널리 보급하면서 우리 전통차가 퍼져나가게 된 거죠.

그렇게 시작된 차의 역사가 어느덧 1,300년이나 됐는데요,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건, 시배지인 이곳의 지리적 여건이 애초부터 차를 재배하기엔 최적이었다는 겁니다. 이곳은 섬진강 골안개가 햇볕을 막고 있어서 기온이 선선하고 일교차가 큰 편인데요 이러한 환경이 차농사에는 안성맞춤이라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하동 차가 명차로 꼽히는 이유는 이렇게 지리적 요건이 크게 작용한 덕입니다. 그래서 고려와 조선시대까지 하동차는 조정에 진상됐다고 하구요.

하동에서 뛰어난 야생차는 이슬을 먹고 자란 잎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차는 피로를 풀어주고 머리를 맑게 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 하동차에 대해 차에 조예가 깊었던 추사 김정희와 초의선사는 이렇게 극찬했다고 합니다.

초의선사: 물 좋고 산 좋고... (차 따르는 소리) 이 차 맛까지 좋다면
금상첨화일 텐데 말입니다. 하하...

추사 (받아들며) 초의선사께서는 욕심도 많으십니다.
물 좋고, 산 좋으면 됐지요. 허허..

초의선사: 자, 차 한 잔 하시지요. 사실 화개차맛은 의심할 필요가 없답니다.

추사 그래요? (마시고 감탄) 음!! 내 그동안 많은 차를 마셔봤지만,
이곳 화개차 같이 훌륭한 차는 처음 맛보았습니다.
중국의 최고 차라 불리는 승설차 보다 이곳 화개차의 맛과 향이
훨씬 좋습니다. 어찌 이런 맛이 난단 말입니까?

초의선사: 하하... 추사선생,
저 차밭의 새순들을 보십시오.
신선 같은 품모와 고결한 자태...
그 종자부터 다르니 그 맛이 오죽하겠습니까

추사 하하하.. 맛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하하~

5. 천년 차나무와 야생차

푸르른 차시배지를 거쳐 구수한 차향이 풍기는 다원골목을 걷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천년동안 나를 기다렸을지 모를 차나무를 만나실 차례입니다.

화개면 정금리를 지켜 온 천년차나무 말이죠.

보통 수령이 천년이라고 하면 엄청 크고 몇 사람이 둘러서야 할 만큼 굵은 고목일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차나무는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크기가 작습니다.

높이 4.15미터와 둘레 57센티미터의 천년차나무는 매우 큰 축에 속한답니다.

주변 다른 차나무와 비교해 봐도 천년차나무는 월등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나무는 한 국기록원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 된 차나무로 인증 받았습니니다.

몇 해 전 야생차축제 때에 천년차나무는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는데요,

이 나무에서 딴 차 100그램이 1,300만원에 경매로 팔려 나갔던 겁니다.

희소성의 가치를 감안한 결과였죠, 문득 천년의 향기를 지니고 있을 차의 맛이 궁금해지긴 하네요.

하긴 천년의 향기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천년차나무의 주변,

구불구불한 능선을 따라 자란 야생차의 맛도 기가 막히거든요.

하동의 다른 차밭도 그렇듯 이곳도 야생차밭인데요,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잡초도, 차 잎도 일일이 허리 숙여 손으로 뽑아내고 따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정성이 이만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네요

이곳 차들은 이슬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구슬땀과 사랑까지도 먹고 자라서 그 맛과 향이 더 좋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6. 다원과 차체험

벚꽃구경과 야생차밭체험, 그리고 천년의 차나무도 둘러봤으니, 이제는 좀 편안하게 차 맛을 음미해 보는 것도 좋겠죠? 차의 고장답게 하동은 다원이 참 많은데요, 한 150여개 정도의 다원이 '십리벚꽃길' 주변에서 차향기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잘 꾸며놓은 다원부터 차 맛에만 집중하는 다원들까지 그 개성도 참 다양한데요 십리벚꽃길을 걸은 뒤 다원에서 녹차를 마시는 것은 어쩌면 하동 여행 중에 누릴 수 있는 큰 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동 지역에는 2,000여 가구가 차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야생차는 일일이 손으로 직접 따고, 비비고, 덫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덫는 과정이란 물기가 있는 차 잎이 타지 않을 정도로 볶아서 익혀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차를 만들 때 찻잎이 타지 않도록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잎차의 수확은 4월 20일, 곡우부터 5월 말까지 하는데요, 곡우 전후로 해서 5일 동안 탄 차를 '우전'이라고 하구요, 그 다음에 '세작, 중작, 대작'으로 나뉘죠.
'우전'은 양은 적지만 먼저 탄 여린 차일수록 맛이 달콤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가격이 가장 비싸구요, 입하인 5월 5일 전후에 따는 '세작'이 그 다음,
그리고 그 이후부터 5월 하순까지 따는 '중작과 대작'의 순으로 가격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요즘엔 산비탈도 아니고,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밭에서 따기 때문에 대부분 우전시기인 곡우전에 수확을 마친다고 하네요.
이렇게 정성들여 만든 차를 다원에서 마시면 차와 함께 분위기에 흠뻑 젖을 수 있는데요, 다원에서는 전통 방법으로 정성껏 차를 내놓기 때문에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차의 문화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하동에 처음 들르시는 분이나 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원의 주인장이 들려주는 하동차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예전 하동 주민들은 차를 약처럼 마시기도 했다는 옛 이야기도 전해주시거든요. 그럼 이곳에서 다원을 운영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볼까요?

예전에는 발효차를 솥에 물과 함께 넣고 한꺼번에 끓여놓은 뒤 감기 걸리면 설탕 넣어 훌훌 마시고 그랬습니다. 요즘도 일상생활에서 차를 식수처럼 마시는 집들이 많죠. 녹차가 중풍 등 성인병에 좋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동 어르신중에 중풍 환자가 적은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두 손 곱게 차 한 잔 받쳐 들고, 창 너머로 눈을 돌리니, 푸른 차나무 숲 배경으로 그윽한 정취가 느껴집니다. 사람냄새풍기는 화개장터와 아름다운 꽃대궐을 지나, 투박하지만 강인한 지리산의 정기와 정성으로 자라난 하동의 야생차밭까지 저마다 다른 모양의 풍경과 삶이 더 없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더 없는->더 없이 푸른 차 잎에 부딪혀 떨어지는 신선함이 온몸을 감싸고 돌아 땀도 피로도 절로 사라집니다. 서걱대던 마음이 차 한 잔에 평온해지는 것도 같네요.
화개장터에서 쌍계사까지의 10리에 달하는 이 길엔 1931년부터 오늘날까지 이 곳을 지키기 위해 이곳 노력했던 이곳의 주민들과 스님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배어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길을 걸을때마다 그들의 노고에 감사를 보냅니다.